

서초구 방배동

다양한 작품으로 스펙트럼 넓혀온 김강우, 지난달 개봉 '귀문'으로 관객 만나

올해 데뷔 20년 차를 맞은 배우 김강우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다. 배우로 데뷔하기 전 1998년 조현제 등과 함께 남성 4인조 그룹 '가디안'의 래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러나 '가디안'은 타이틀곡 '슬픈 인연'으로 음악 프로그램에 몇 회 출연한 뒤 자취를 감췄다.

가수로 빛을 보지 못한 김강우는 이후 배우로 전향해 SBS 오픈 드라마 '남과 여'에 출연하며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이듬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 '해안선'에서 조일병 역으로 스크린에도 데뷔했다.

2003년 방영된 MBC 드라마 '나는 달린다'는 '배우 김강우'를 대중에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이다. 당초 이 드라마의 주인공 신무철 역에는 당시 떠오르는 신인이었던 배우 조인성이 낙점돼 있었다. 그러나 담당 PD가 공개 오디션을 보러 온 김강



윌드빌라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8-5

우를 주연으로 발탁했다. '나는 달린다'는 동시간대 방영 드라마와 비교해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신무철 역을 완벽하게 소화한 김강우의 연기력만큼은 시청자들에게 인정받으

며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았다. 김강우는 영화에선 '실미도' '태풍태양' '야수와 미녀' '경의선'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특히 2007년 '경의선'에서 섬세한 연기로 토리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 잘하는 배우로 인정받았다.

'경의선'은 일상에 지친 두 남녀가 경의선의 마지막 역인 임진강역에서 만나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김강우는 이 영화를 위해 실제 기관사 교육 과정을 훈련받았다.

드라마에서 김강우는 '남자 이야기'를 통해 악역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며 '해운대 여인들' '골드크로스' '굿바이 미스터 블랙' '씨클: 이어진 두 세계' '육탄면옥' '99억의 여자' 등에 출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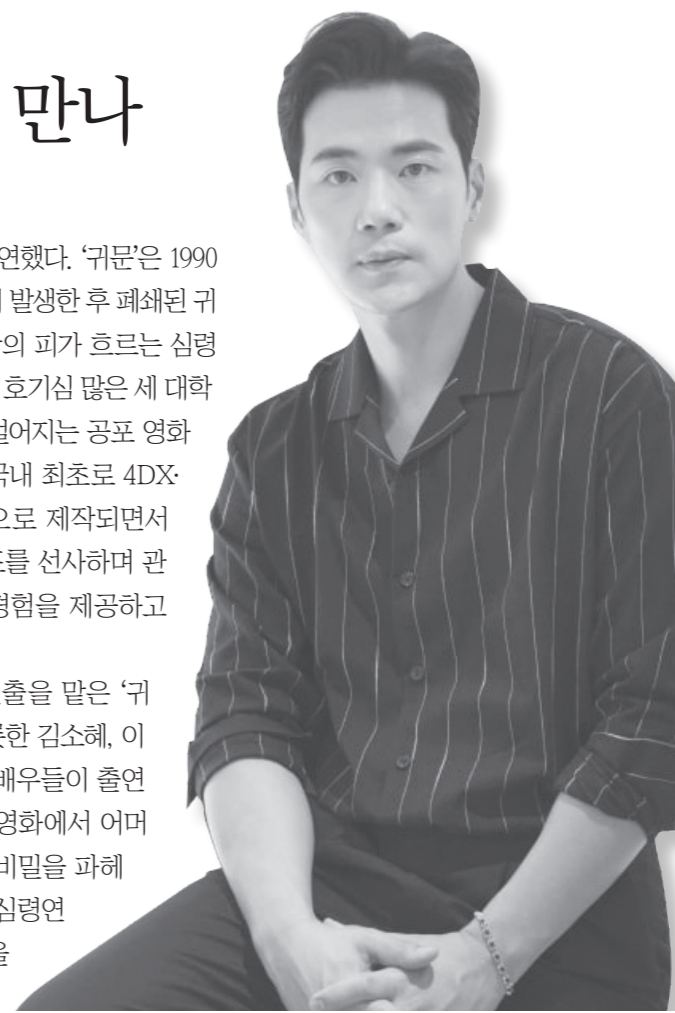
배우로 불렸다. 특히 2018년 드라마 '데릴남편 오작두'에서 순박한 자연남 오작두를 맡아 열연하며 MBC연기대상 주말 특별기획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또 허영만의 만화 '식객'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식객'에 출연해 한국 최고 요리사의 자리를 두고 식칼을 휘두르는 요리사 성찬으로 변신했다. 그의 열연에 힘입어 '식객'은 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김강우는 이후 출연한 '가면' '오감도' '하하하' '무적자' '인류멸망 보고서' '돈의 맛' '사이코메트리' '결혼전야' '카트' '간신' '사라진 밤' '새해전야' '내일의 기억' 등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대부분 흥행에서는 부진했다. 김강우는 8월 25일 개봉한 호러미스터

리 영화 '귀문'에 출연했다. '귀문'은 1990년 집단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폐쇄된 귀사리 수련원에 무당의 피가 흐르는 심령 연구소 소장 도진과 호기심 많은 세 대학생이 발을 들이며 벌어지는 공포 영화다. 기획단계부터 국내 최초로 4DX-스크린X2D 버전으로 제작되면서 새로운 체험형 공포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심덕근 감독이 연출을 맡은 '귀문'은 김강우를 비롯한 김소혜, 이정형, 홍진기 등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김강우는 이 영화에서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연 심령 연구소 소장 도진 역을 맡았다.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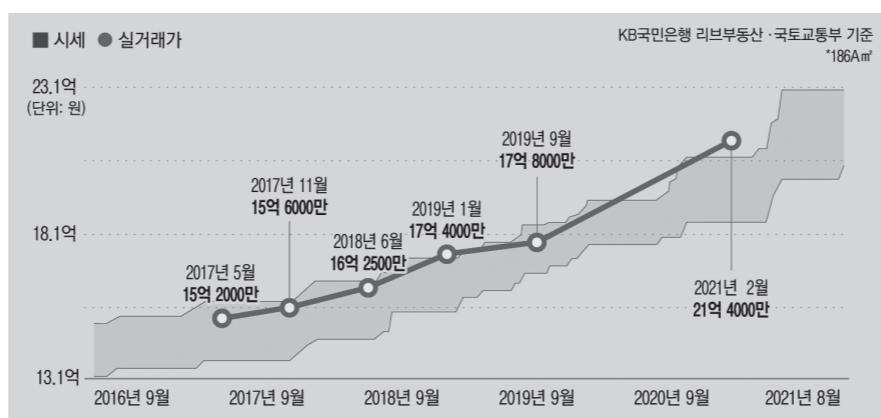
미디어라인빌딩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3-7



방배e-편한세상2차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1-26



리가든7차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9



김창환

현)미디어라인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장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 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장은 경희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90년대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트곡 작곡가다. 가수 신승훈, 김건모, 클론, 체연 등을 톱스타의 반열에 올린 최고의 프로듀서로 불린다. 당시 레코드사와 기획사로부터 문전박대당하던 신승훈의 자질을 알아보면서 1990년대 일약 스타 프로듀서로 떠올랐다. 이후 김건모, 박미경, 터보, 클론 등을 프로듀싱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특히 김건모 3집 앨범은 1995

년 역대 최다 판매 음반으로 한국기네스에 올라 여전히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클론의 '꿈따리 사바라' '초련', 엄정화의 '물라', 박미경의 '집착' 등을 작곡 및 프로듀싱하면서 가요계의 '미다스 손'으로 군림했다. 그가 세운 모아기획의 현재 사명은 미디어라인이다.



전루민

현)이대서울병원 안과 교수

전루민 이대서울병원 안과 교수는 1997년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과 2005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의학 석사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이대병원 안과 전공의로 일했다. 이후 세브란스병원 안과와 이화여대부속병원 안과에서 전임의로 일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양대 김안과병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현재까지 이대서울병원 안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요 진료 분야는 백내장, 각막질환, 안성형 등



이다. 그는 건양대부속 김안과병원 임상교수, 대한안과학회 정회원, 한국외안부연구회 기획이사, 한국 백내장굴절수술학회 감사이사, 한국 각막질환연구회 총무 등을 지내면서 학회 활동을 꾸준히 하며 국내 안과 분야 발전에 힘쓰고 있다.



정준하

현)개그맨

정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4수까지 하다가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생각에 MBC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991년 '경찰청 사람들'에서 연출보조(FD) 일을 하다 1993년 당시 최고 인기가수인 혼성그룹 '물'의 매니저 일을 하게 됐다. 이후 이휘재의 매니저를 맡았다가 이휘재가 입대한 뒤 1995년 MBC '테마극장' 제작진의 제안으로 고정 출연하게 됐다. 개장수, 도독, 때밀이, 폭주족 등 주로 단역 전문 배우로 활동했다. 1997년까지 배우생활



을 하던 정준하는 오디션에 응시해 특채 MBC 개그맨이 됐다. 1999년 MBC '여기는 코미디 본부'에서 대중에 눈을 뜨고 2003년 MBC '코미디 하우스'의 코너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의실스러운 바보 연기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MBC '무한도전'에 합류한 뒤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중 2공구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구간 중 2공구 '대명초교입구 교차로~고덕아이파크 아파트'(약 1.2km, 가칭 한영고역, 고덕역) 구간이 지난달 31일 착공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고,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 고덕강일지구까지 총 연장 4.12km에 4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개 공구로 분할해 작년 12월부터 입찰이 진행됐다. 이 중 2공구의 사업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지난달 30일 계약이 체결됐다. 다음날 바로 착공했으며 2028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중 세 번의 유찰로 사업자 선정이 다소 늦어진 1공구(약 1.3km, 가칭 생태공원사거리역)와 3공구(약 1.4km, 가칭 고덕강일역)도 2공구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3차 공고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시민들이 9호선 지하철도를 타고 내리는 모습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진행했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9호선 4단계 이후 구간인 고덕강일1지구~강일동(1.25km 4단계 추가연장 구간) 구간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단계 추가연장 구간은 작년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포함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0년 4월 기본계획 승인 △2020년 6월 터기공사 확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위해 10년 이상 적극 힘썼다.

이정훈 구정장은 "현재 추진 중인 5호선 직결화, 8호선 연장,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써서 50만 강동구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남양주선(18.1km)이 신규추진사업으로 확정되고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9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착공된다.

구는 △2011년 국토교통부의 보증자리 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때 선제적 교통대책 요구 △2012년 고덕-강일 보증자리 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9호선 4단계 사업 포함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0년 4월 기본계획 승인 △2020년 6월 터기공사 확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위해 10년 이상 적극 힘썼다.

이정훈 구정장은 "현재 추진 중인 5호선 직결화, 8호선 연장,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써서 50만 강동구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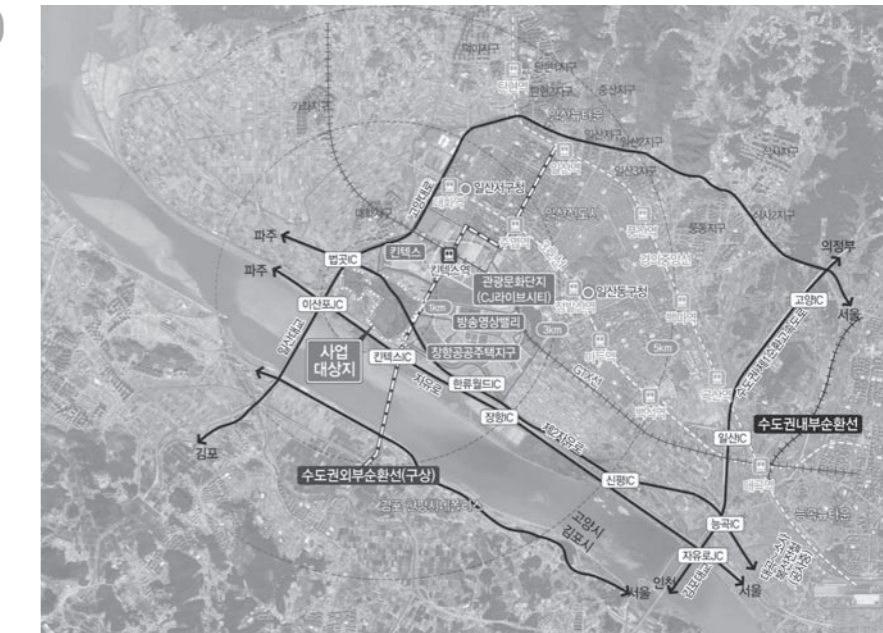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인가... 12월 착공 예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는 경기도와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밝혔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강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화동 일원 약 87만㎡(26만평)에 사업비 약 8500억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에 위해 입지 기반을 다진다.

그동안 경기도 등 공동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용역 착수(2018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2019년 12월) △중앙투자심사 통과(2020년 6월) △토지보상계획 공고(2020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2021년 6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밟았다.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선정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끝내면 편입토지 등의 협의보상 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위치도

행(지난달 말 기준 65%)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올해 12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시행자는 일산 테크노밸리 전체면적의 약 37%(32만㎡)를 산업시설(지식기반, 연구, 첨단제조), 52%(45만㎡)를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용지로 계획했다. 주변에 형성될 방승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CJ라이브시티, 킨텍스와 함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자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